



행복한 노후 만들기

수입 한약재·구이용 숲 부적격

식약청 "안전 기준·규격 미흡 건강 위험"

수입한약재와 식용유지 및 구이용 숲의 안전기준이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효시험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복제의약품(가피약)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비판도 높였다...

소득의 10~20% 투자 습관부터 길러라

안정성 고려 부동산 보단 연금소득 확보 필요
은퇴시점 기존 월소득의 50% 노후자금 목표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39.9%였고, 주된 고인으로 건강(40.7%)과 경제적 문제(40.1%)를 들었다.

물론 61.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적 독립을 누리려는 통계가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재정전문가들은 '이들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도록이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경기흐름에 따라 노후생활의 질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노후생활 특성에 맞지 않는다.

비하는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기계적으로 은퇴 시기와 생활비를 정해놓고 물가를 감안해 노후자금을 산출한 후 이 돈을 만들면 노후준비의 모 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와 생계적 은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지만, 성공적인 노후란 돈을 뛰어넘어 자신이 모 든 것을 능동적으로 결정해 결국 자아를 성취하는 일일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美 금리 인하 기대...코스피 43P ↑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강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42.87포인트(2.34%) 오른 1,877.56에 마감됐다.

이날 지수는 전일 뉴욕증시가 금융불안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30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이를 연속 급등한 영향을 받아 50.63포인트(2.76%) 오른 1,885.32로 출발한 뒤 중종 1,891.45까지 오르기도 했다.

"학교를 문화·복지의 중심으로"

정부 BTL방식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세워지는 도서관·체육관·수영장·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주차장 등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美 서브프라임 부실 등 악화됨

국내 금융시장 신용경색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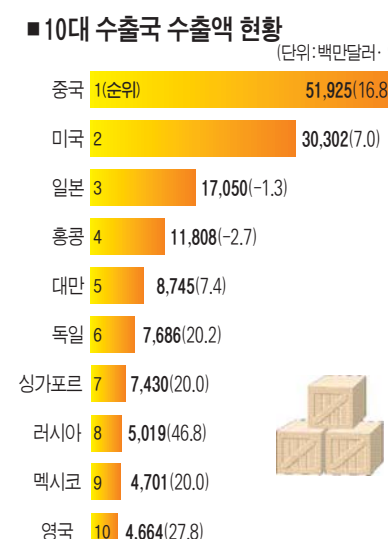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산돼 국제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출 하루 10억달러 시대

올 무역 규모 7,000억弗 돌파... 세계 11위 우뚝

지난해 6천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올해는 7천억 달러를 넘어 무역규모 순위가 세계 11위로 지난 해보다 한 단계 상승할 전망이다.

무역규모 7천억 달러 달성은 100억 달러를 처음 넘은 1974년 이후 33년만이며



3천억 달러를 달성한 2000년으로부터 7년만이고, 수출 하루 1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지난 2003년 3천726억 달러에서 2004년 4천 783억 달러, 2005년 5천456억 달러, 지난해 6천349억 달러 등 매년 700억~1천억 달러 안팎의 고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오는 2011년 1조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난 474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의 날인 30일 400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지 2년만에 새로 제정된 상을 받게 됐다.

수출의 탑 수상업체 가운데는 대기업이 71개사, 중소기업이 1천218개사 등 모두 1천289개사로, 수상업체수는 지난해보다 48개사가 늘어났다.



금호고속, 베트남 영업 시작

금호고속은 2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KUMHO SAMCO EXPRESS'의 개업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다.

종부세 대상자 Q&A

국세청이 주택·토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48만6천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는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납세자들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간 내에 종부세를 내면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안내고 버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Q : 납부 기간 넘기면 어떤 불이익 받아
A : 가산금 3%, 매달 1.2% 붙어

- 종부세 대상자이든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 방법은.
-납부 기간(12월 1일~17일) 내에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납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신고자는 내년 2월 중 발부될 예정인 결정 고지서를 다시 받는다.
-임대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못했다면.

앰코테크놀로지 6억불 수출탑 삼호重 하영구씨 철탐산업훈장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을 광주·전남지역 수출유공자는 수출탑 수상자 27개 업체, 훈·포장 수상자 21명 등이다.

여천 NCC '대림-한화' 내분 전면전

최근 내분을 겪고 있는 여천 NCC 문제와 관련해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이 29일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한화측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사실이 전해지자 여천 NCC 공장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림, 한화 김승현회장 고소 한화, '갈등 주범' 강력 비난

출신 이신호 부사장이 일부 언론에 한화 측이 대림 측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대림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최고위층으로서 당연히 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